



“아베는 이곳을 떠나라” 일본 아닌 일본 속 외침

오키나와 사진가 히가 포지션민 제주 초대전
日 내부식민지 오키나와
지난한 투쟁의 역사 기록

“아임 낫 야미툰쥬, 아임 우치난쥬.” 오키나와 사람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나는 오키나와인이다.”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닌, 일본의 ‘내부식민지’인 오키나와의 지난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이를 사진으로 증거하는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반전반일 작가 히가 토요미츠(比嘉豊光)의 작품이 제주에 걸린다.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옆 포지션민제주에서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히가는 1950년 오키나와 본섬 요미탄촌 소베에서 태어났다.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에 처음으로 미군이 상륙했던 곳으로 오키나와 전쟁이 시작된 지역이다. 류큐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그는 운명처럼 대학 시절부터 카메라를 들고 오키나와의 오늘을 기록해나갔다. 이번 전시에는 코자사건과 전군노 투쟁을 다룬 사진을 주로 선보인다.

코자폭동은 1970년 12월 20일 오키나와 최대 공군기지의 가테나 기지에 인접한 코자시(지금의 오키나와시)의 중심가에서 미군병사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가 계기였다. 미군정 통치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된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교투사건으로 폭발했다. 전군노는 ‘전오키나와군노동조합’



오키나와 사진가 히가 토요미츠가 기록한 1971년 전군노 투쟁.

의 약칭이다. 히가는 1971년 2월부터 4월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투쟁의 나날을 담았다.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광대한 미군기지는 그대로이고 새로운 헤노코미군기지 건설까지 강행하고 있다.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토지와 존엄을 되찾는 반기지 투쟁’을 하는 오키나와 사람

들이 있는 한 히가는 카메라를 내려 놓을 수 없다.

오키나와 종전일인 6월 23일이면 제주 4·3추념식처럼 오키나와 위령의 날이 치러지고 일본 아베 수상은 매년 이곳을 찾아 추념사를 한다. 그때마다 유족들과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돌아가라! 아베!”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64)725-4410.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관

<165>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맹글 : “하르바님-바당 소꿉이 신 큰큰하바위 어맹 들쟁 허엿수광?”
쥬네 : “경하곡 허룡은 무사 큰큰하바위를 맹기쟁 허엿수광?”
하르바지 : “어-그건 큰큰하바위를 성산 앞바당으로 7정 강 바위산을 맹글젠 허엿저게, 허룡은 죽은 바위덜신디 싯당 꼴이 놀겐 허엿된 오란 큰큰하바위를 들젠 허엿저. 경하디 이상하게 큰큰하바위가 7막도 안허연게, 큰일이여 허맹 이신디 무슨 일산디 저젠 바당소꿉 죽은 바위덜이 도웨주켄 허맹 이착더레 왓주게.”

* 제주어 풀이

*맹글 : 들리고, *허엿수광? : 하고 있어요? *경하곡 : 그리고, *앞바당으로 7정 강 : 앞바다로 가지고 가서, *맹글다(문들다, 흥글다) : <움직>만들다, *허엿저게 : 했단다, *죽은 바위덜신디 : 작은 바위들에게, *오란 : 왔지, *7막웃다(7막없다, 7막없다) : <그림>끼떡없다, 혼들림없다, *7막도 안허연게 : 끼떡도 안 했단다, *안허연신이 허당 보란 : 안 했는가 하다 보니, *무슨 일산디 : 무슨 일인지, *지냥으로(이녀냥으로, 재냥으로) : <어찌>자기 스스로,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대어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도>도씨(조사)/<때>때씨(조사)/<이름>이름씨(이름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서에 작품은 공짜가 아닙니다”

제주서에가 6인 공동으로
문예회관서 서예아트페어
“서에 유통 모범 사례 모색”



오장순의 '날마다 좋은 날'.

제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서예가 6명이 “서에 작품 유통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며 첫 행사를 연다. 이달 17~22일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펼쳐는 ‘제주서예아트페어’다.

이번 아트페어는 제주서예문화축제 기간 중에 마련됐다.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소속 중진 작가인 박홍일 김미형 김형식 양봉조 김혜정 오장순 서예가가 서예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뜻을 합쳤다.

김미형은 문인화와 서예 부문을 아우른 원숙한 필치와 발묵(먹물의 번짐 효과)으로 여유를 담는다. 김형식은 전각과 새김기법, 전서, 한글 등을 통해 중후한 멋과 일렁이는 감

성을 드러낸다. 김혜정은 문자의 현대적 조형성과 여백 사이에 긴장과 이완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박홍일은 금문(金文, 청동기 등에 주조되었던 글씨체), 전각새김, 채색효과 등 궁선 필획이 도드라진다. 양봉조는 옛 성현의 말씀을 편안한 필치로 써나갔다. 오장순은 행서, 한글 손글씨, 전각새김 등을 준비했다.

1인 5점씩 30점을 내걸고 소품도 10여점 나온다. 개막 행사는 8월 17일 오후 6시에 열린다. 문의 010-6695-985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제주 극단 가람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사업으로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무대에 올린다.

우수레퍼토리 공연으로 올리는 이 작품은 100분짜리 신과 악극 형식으로 준비됐다. 이상용 각색, 정현주 연출로 공연 일정은 이달 14일 오후 4시, 15일 오후 3시와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가영 이승준 이상용 박선미 등이 출연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의 064)722-0794.

담화헌 레지던시 워크숍

담화헌스튜디오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창작공간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작가레지던시 워크숍을 연다.

캐나다, 일본, 광주, 제주 등에서 참여한 입주 작가들은 지난 4월 담화헌 마르세, 6월 웅기인문학 세미나를 통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달 14일 오후 2시부터 제주웅기미술관 등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입주 작가들의 작업세계와 장작가마 짓는 과정을 나누고 웅기제작 시연을 벌인다. 도민과 여행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탐라서각연구회 회원전

탐라서각연구회(회장 현승남)가 이달 15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회원전을 연다.

이 전시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박달나무 등을 이용해 먹, 금박, 필 등으로 채색한 새로운 기법의 작품 60여점이 나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작업한 작품들이다. 탐라서각연구회는 2004년 창립해 이듬해부터 해마다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서각을 배우려면 010-2699-68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꿈바당도서관 올빼미 캠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17일과 24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과정은 ‘모여라, 꿈바당 올빼미 캠프’로 꾸며진다. 도서관 정원에서 ‘에벌레 체험’, ‘황사를 막아라’, ‘꿈바당 정원의 비밀을 찾아라!’ 등 즐거운 자연놀이가 이루어지고 ‘천연 벌레 기피제’ 만들기도 진행된다. 총 6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www.ijdreamlib.or.kr) 참고. 문의 064)745-7101.

3D 프린팅 의상 제주도 푸른밤을 품다

패션 디자인 김양수 개인전 오늘까지 연복로 연걸러리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김양수 작가가 3D 프린팅을 활용해 제주바다 푸른빛을 의상에 담아냈다. 제주시 연복로 연걸러리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네 번째 개인전 ‘프린팅 패션-라이트’다.

김양수 작가는 각박한 현실을 떠나 휴식을 갈구하고 싶을 때면 제주도 푸른 밤을 머릿속에 그렸다. 지난 6월 휴가차 방문했던 제주에서 그 이미지가 작품으로 연결됐다. 어둠 속 서관 홈페이지(www.ijdreamlib.or.kr) 참고. 문의 064)745-7101.

작가는 강한 빛을 보다가 눈을 감았을 때 잔상이 맺히듯, 실을 얹어 만든 매듭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도록 이끌었다. 빛에 반응하는 섬유조직의 질감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블랙 라이트에 반응하는 형광물질이 첨가된 필라멘트를 사용했다.

3D 프린팅으로 형태를 제작했고 0.2mm 레이어로 쌓아 올린 섬유구조를 바탕으로 옷과 가방, 팔찌 등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빛이 사라진 전시장에 설치된 블랙 라이트를 통해 형광, 야광 필라멘트에 반응해 빛을 머금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진다. 빛나는 푸른 형상을 떠올리며 작품 주제를 ‘빛’으로 정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